

OPEC+, 5·6월 하루 970만배럴 감산 합의

‘유가 전쟁’ 일단락

“유가 지속 반등은 미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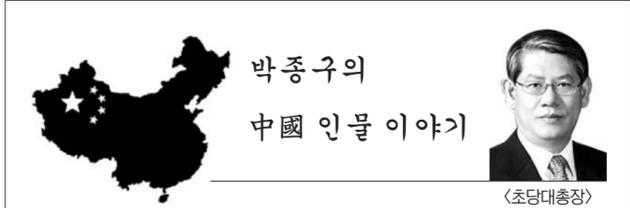
트럼프 “수십만 일자리 구제”

OPEC+(OPEC과 10개 주요 산유국의 연대체)가 12일 긴급 회상회의를 열어 5월 1일부터 6월 말까지 두 달 간 하루 970만 배럴의 원유(가스콘덴세이트 제외)를 감산하기로 합의했다. OPEC은 회의 뒤 낸 보도자료에서 이런 합의 내용을 공개하면서 “모든 주요 산유국이 원유 시장 안정을 위한 노력에 상응하도록 시의적절하게 이바지해야 한다”라며 OPEC+ 이외 산유국(미국, 캐나다 등)의 동참을 촉구했다.

이날 합의된 감산량은 그간 OPEC+가 결정한 감산·증산량 가운데 가장 큰 규모다. 9일 발표된 잠정 합의안에 따르면 감산 기준은 2018년 10월이며, 하루 250만 배럴씩을 감산해야 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는 산유량을 각각 하루 850만 배럴로 줄여야 한다. 사우디, 아랍에미리트(UAE), 쿠웨이트가 4월부터 산유량을 올린 터라 합의된 감산량인 하루 970만 배럴을 4월 기준으로 계산하면 하루 1200만~1300만 배럴 정도를 감산하는 효과다. 이란 석유장관은 이들 3개 산유국이 OPEC+의 감산량 이외에 하루 200만 배럴을 자발적으로 감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6월 이후 감산 계획과 관련, OPEC은 올해 7~12월까지 하루 770만 배럴, 내년 1월~2022년 4월까지 하루 580만 배럴을

감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9일 합의보다 각각 30만 배럴, 20만 배럴 감소한 양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합의 직후 자신의 트위터에 “OPEC+가 크게 합의했다. 이 합의가 미국의 에너지 분야 일자리 수십만개를 구할 것이다.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살만 사우디 국왕에게 감사하고 축하한다. 그들에게 방금 그렇게 말했다. 모두에게 대단한 합의다”라고 적었다. 크렘린은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살만 빈 압둘아지즈 사우디 국왕이 전화 통화로 OPEC+의 감산 결정을 지지했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지난달 6일 OPEC+ 회의에서 감산 합의가 결정된 뒤 사우디의 증산 선언으로 촉발된 ‘유가 전쟁’도 일단락될 전망이다.

하지만 이날 합의로 20년 만에 최저치로 떨어진 유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속에 지속적인 상승세로 반전할 수 있는 동력을 충분히 얻었는지는 미지수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다. 코로나19 위기로 감소할 원유 수요량이 하루 3천만 배럴로 전망되는 만큼 OPEC+의 감산량은 국제 원유 시장의 공급 과잉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여서다. 9일 일일 1000만 배럴 감산 소식이 전해지자 국제 유가는 10% 가까이 급락했다. 미국 투자은행 레이먼드 제임스의 에너지 전문가 무함마드 굴람은 AP통신에 “이번 감산 규모가 전례 없이 크지만, 코로나바이러스가 원유 수요에 미치는 영향 역시 전대미문이다”라고 평가했다. /연합뉴스



박종구의
中國 인물 이야기

〈초당대총장〉

〈228〉 회종

회종(徽宗, 1082~1135)의 이름은 조길로 북송의 8대 황제다. 정사를 도외시키고 문화예술에 탐닉해 사실상 북송의 멸망을 초래했다. 6대 황제 신종의 열한번째 아들로 7대 철종의 아우다. 1085년 철종으로 즉위한 형 조후가 봉어하자 신종의 황후 상씨 지지에 힘입어 1100년 황제로 즉위했다. 철종이 죽자 재상 장돈은 철종의 동복 동생인 단왕을 추천했으나 황태후는 단왕 조길을 후계자로 낙점했다. 장돈은 단왕이 경박해서 황제가 되기에 부적합하다고 생각했다. 결국 단왕의 경박함이 왕조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1102년 재정을 재상으로 기용하고 신임을 다시 추진했다. 이에 따라 신법당 인물이 대거 발탁되었다. 재정은

정부군에게 진압되었지만 사실상 북송의 숭늉을 끊는 반란이었다. 도교에 심취해 스스로 교주도군황제(教主道君皇帝)라 칭했다. 천하에 도교의 선경을 구하는 명령을 내렸다. 천도회라는 대규모 도교 의식을 행했는데 엄청난 국고가 탕진되었다. 1114년에는 도계(道階) 26급을 설치했다. 도교 경전의 수집과 도관 건설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재정이 급속히 고갈되었다. 틈나면 궁을 떠나 미행 잡복하여 개부의 유락에 출입하였다. 사료에는 다음과 같이 묘사되어 있다. “인생은 한기에 부족하다고 생각했다. 결국 단왕의 경박함이 왕조를 나락으로 떨어뜨렸다. 1102년 재정을 재상으로 기용하고 신임을 다시 추진했다. 이에 따라 신법당 인물이 대거 발탁되었다. 재정은

북송 8대 황제...정사 외면 왕조멸망 초래

그후 16년간 재상으로 재직하면서 구법당을 탄압하고 회종의 사치와 방종에 적극 협조했다. 서화에도 능해 회종의 신임을 듬뿍 받았다. 회종이 신임하는 환관 동관의 지원으로 재상으로 복귀했다. 서화와 시문에 능한 회종은 정치적 감각이 뛰어난 채경과 동관에게 정치를 사실상 위임했다. 신법 중에 방전군세법(方田均稅法)이 있는데 대지주가 은닉하고 있는 토지를 찾아내 세금을 징수하는데 목적이 있다. 토지를 측량해 숨겨진 전답을 찾아서 추가 세수 확보가 이루어졌다. 대지주가 크게 타격을 받았다. 공전법(公田法)이라는 새로운 세법을 만들어 세금을 거두었다. 전답을 측량하는 방식을 변경해 토지 면적이 1무(畝)가 넘는 것은 공전으로 몰수했다. 지주들의 타격이 컸다. 개봉을 강남처럼 문화와 관광의 도시로 만들려는 의도로 강남에 있는 진기한 나무, 꽃, 돌, 바위 등을 대거 개봉으로 옮겨왔다. 특히 태호(太湖)의 물속에 있는 태호석에 집착했다. 강남에서 개봉으로의 운반에 엄청난 인력과 재정이 소요되었다. 백성들의 원망과 불만이 하늘을 찌를 듯했다. 소설 수호전(水滸傳)의 시대적 배경이 회종 치세이다. 전국 각지에서 농민 반란이 끊이지 일어났다. 1120년 절강성에서 일어난 방법의 난이 대표적이다. 환관 동관의

1115년 여진족 아골타가 금(金)을 세웠다. 회종은 마정을 금에 파견해 요나라 협공을 교섭했다. 1120년 종래 요에 제공했던 세폐를 금에 제공하기로 해 동맹이 성립되었다. 협공할 때 금은 만리장성을 넘지 않는다고 약속했다. 1123년 금과 송의 협공으로 사실상 요나라가 멸망에 몰렸다. 금은 산서성 대동을 넘어 연운 16주를 거의 장악했다. 송은 금에게 연경의 반환을 요구했다. 금의 태조는 송과의 협약을 지켰다. 연경 반환 직후 태조가 죽고 동생이 태종으로 즉위했다. 송은 금이 점령한 대동을 탈환하려고 요와 비밀 협약을 맺었는데 1125년 요의 황제가 금에게 생포되고 비밀문서도 발견되었다. 격노한 금은 대군을 동원해 송을 토벌했다. 연경을 지키던 관악사가 금에 투항했다. 회종은 깜짝 놀라 퇴위하고 1115년 태자로 책봉한 장남 조환에게 황위를 넘겼으니 흥종이다. 1126년 회종은 태상황이 되어 강남 진강으로 도주했고 흥종은 금과 협약을 맺어 연경 포위를 풀었다. 그러나 개봉에서 주전론이 다시 일어났다. 금은 다시 개봉을 함락시켰다. 회종과 흥종은 금의 포로가 되었다. 1127년 송왕조가 멸망했다. 역사에서는 이를 정강지변(靖康之變)이라고 한다. 회종은 만주로 이송되어 시력을 잃고 1135년 오국성에서 병사했다.

“코로나19 3가지 유형 변이 일으키며 세계로 퍼져나가”

영국 케임브리지 연구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3가지 유형의 변이를 일으키며 세계로 퍼져나갔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피터 포스터 유전학 교수 연구팀은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서로 밀접한 연관이 있으면서도 서로 다른 3가지 뚜렷한 유형으로 변이를 일으키면서 중국 우한으로부터 아시아, 북미, 유럽, 호주로 번져나갔다는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고 영국의 일간 더 선(The Sun) 인터넷 판이 11일 보도했다.



태극기 입은 브라질 예수상 부활절인 12일(현지시간) 브라질 리우데자네이루의 상징인 거대 예수상에 코로나19와 싸우는 한국을 격려하는 뜻으로 조명장치를 통해 태극기와 '기대'라는 글자가 투영되고 있다. /연합뉴스

작년 12월 24일부터 금년 3월 4일 사이에 세계에 발생한 코로나19 감염 환자 160 명으로부터 채취한 바이러스의 완전한 유전체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연구팀은 설명했다. 연구팀은 바이러스 유전체 분석 결과에 근거한 수학적 네트워크 알고리즘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초기 전파 경로를 재구성했다.

미 ‘부활절’ 코로나 확진 55만, 사망 2만2000명 넘어서

경제 정상화 논의도 고개

미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부활절인 12일(현지시간) 55만명을 넘어섰다. 다만 일부 주에서 코로나19의 확산이 주춤하는 양상을 보이면서 문 닫았던 사업체·점포와 학교의 재개 등 경제 재가동과 관련한 논의도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미 존스홉킨스대학은 이날 오후 7시 25분(미 동부시간)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를 55만5313명으로 집계했다. 사망자

는 2만2000명으로 집계됐다. 미국은 코로나19 감염자와 그에 따른 사망자가 가장 많은 나라다. 전 세계 코로나19 확진자의 4분의 1 이상, 사망자의 5분의 1이 미국에서 나왔다. 신규 환자 발생은 감소했다. 존스홉킨스대 통계에 따르면 4월 4일 3만3300명 이후 하향 안정화하는 듯 했던 신규 환자 수는 10일 3만5100명으로 치솟았으나 11일 2만9900명으로 내려갔다. 미국에서는 현 상황을 긍정적으로 해석하는 목소리와 여전히 긴장의 끈을 늦추면

안 된다는 경고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가 5월 1일을 경제 정상화 시점으로 염두에 두고 있는 가운데 경제 재가동의 시기와 방법에 대한 언급도 자지고 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보건원 산하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CNN 방송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입원 비율이나 중환자실(ICU) 입실 비율이 감소하면서 결과적으로 신규 환자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 “조심스럽게 낙관적”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당신의 로망은 어떤곳 인가요?

친환경 목조주택을 지어드립니다

목조주택 설계·시공 전문기업

우드빌더스(주) 휴인(주) 문의상담 **062) 945-0036~7**

Modern

Classic

Mediterranean Sea